



## 요약문

본 연구는 유럽 현대무용의 여성 안무가인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 (Anne Teresa De Keersmaeker)의 초창기 작품 〈로사스 댄스 로사스 Rosas danst Rosas〉, 〈에레나의 아리아 Elena's Aria〉를 페미니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세기부터 시작된 페미니즘(Feminism)운동은 여성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고 이후 예술작품 속 여성은 나약한 이미지보단 강인하고 독립성을 띤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 페미니즘의 영향은 현재 여성예술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변할 수 있는 의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사회 문화적 흐름에서의 페미니즘 시각으로 작품 속 여성 무용수의 이미지와 역할을 조명할 필요성을 느끼며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에 나타나는 페미니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페미니즘은 급진주의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로사스 댄스 로사스〉에서 여성무용수의 신체적 억압을 통해 자유의지의 해방적 요소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나타났으며 〈에레나의 아리아〉에서는 여성의 신체 억압이 자유의지의 해방으로 해석되어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안느 테레사의 작품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석한 결과 1980년 대 이후에 대두된 페미니즘 이론들과의 상관성 및 영향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녀의 안무철학과 방향성을 탐색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각과 영역이 확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에는 그녀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연구 및 분석 자료가 전무한 실정에서 새로운 관점 및 시각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안느 테레사를 연구함으로서 현 시대 여성과 남성무용가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바로 소멸하여 의미를 잃지 않고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 페미니즘, 〈로사스 댄스 로사스〉,  
〈에레나의 아리아〉, 무용수, 무용, 예술가

---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들 중 그녀의 초창기 작품 〈로사스 댄스 로사스〉(1983), 〈에레나의 아리아〉(1984)을 페미니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0년대 작품은 여성무용수만이 출연하는 작품이고 페미니즘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자는 남성무용가로써 현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과거에 비해 권위와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예술작품 속 여성은 나약한 이미지보단 강인하고 독립성을 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과거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지금의 여성예술가들의 흐름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의의를 제공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들을 근거로 그 당시의 유럽 현대무용의 메카로 활동하던 여성 안무가인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를 선정하여 그녀의 활동과 작품을 분석 연구하여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시각을 재조명함으로써 이 논문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할 수 있겠다.

페미니즘의 사전적 의미로는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의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과거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남성지배주의와 여성복종의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구조 속 여성은 남성의 존속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자율성과 권리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연극, 영화, 문학, 미술,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가시화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다수의 안무가들에 의해서 가속화되었다. 수동적이고 남성 중심적 시각이 담긴 여성무용수의 이미지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상으로 반영되었고 남성보다 더 강한 이미지의 여성무용수나 성별에 구분이 없는 중성적인 무용수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현대무용

이었다. 처음에 현대무용은 유럽 발레의 귀족주의적 이상에 반대하여 창시된 것으로, 현대무용은 하나의 길을 걸어온 양식이나 유파가 아니었다. 그 개념의 정의상 현대무용은 혁명적이었고, 안무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미지를 발굴하였다.<sup>1</sup>

본 연구자는 1980년대 이후 안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안느 테레사의 작품들 중 〈로사스 댄스 로사스〉, 〈에레나의 아리아〉 두 작품을 선정하고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재조명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안느 테레사의 작품에서 여성성의 개념은 그녀의 초창기 작업들에 공통적인 주제로 나타난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작품들은 여성의 사춘기와 성인기의 전환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녀의 인생에서의 자신의 입장과 도전과 한계를 작품에 많이 반영시켰다.<sup>2</sup>

이 연구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의 변화, 성 역할의 타당성 그리고 최근 혼재된 성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소통하는 예술가들의 역할을 반증할 수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방법은 무용과 페미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 외 자료를 토대로 문헌 연구가 주가 될 것이며, 인터넷 자료, 정기 간행물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작품 속에 내재된 페미니즘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디오, 사진, DVD와 YouTube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배경으로 페미니즘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생애 및 활동과 관련지어 그녀의 작품이 어떠한 관점과 형태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해 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sup>1</sup> 크리스티 아데어 지음. 김채현 옮김, 1995, 172쪽.

<sup>2</sup> Maple Emily, *Walker Art Center*, 2014.

창작된 작품 2개의 영상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작품들을 분석하기 위해 자넷 에드쉐드의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4단계로 나누어진 분석법 중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무용작품에 개별적인 특징으로 무용의 구성요소, 움직임, 무용수, 시각적 무대장치와 청각적 요소 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무용작품에 나타나는 무용수의 모습과 무대 환경을 알아보았다. 2단계에는 무용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들을 적용한 단계로 형식에 따른 밀접한 관계와 그 요소들을 구분해본다. 3단계에서는 위 두 단계의 분석을 근거로 무용작품을 해석하는 단계로서 사회, 문화적 배경, 스타일, 주제와 의미 등 의 개념을 이해하며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화된 분석법을 적용하여 각 작품마다의 구성요소와 형식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페미니즘 해석을 단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의 작품분석을 종합하여 요약 및 결론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그녀의 안무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특징과 각각의 작품들이 지닌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앞서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흐름과 페미니즘을 명확하게 나눌 수 없지만 시대적 배경과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그 시기에 두드러지는 페미니즘의 성향들로 분류하였다.

둘째, 안무가의 작품 중에서 재공연 횟수가 가장 많은 작품을 선정하였고, 평단의 페미니즘적 성향이 많이 나타난다고 파악되는 작품들로만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작품들 중 두 작품만 분석하였기에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로 안느 테레사의 안무 성향을 단정 지울 수는 없다.

셋째, 1984년 작품 〈에레나의 아리아〉은 공연 실황 자료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편집영상 자료만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석이 어렵다고 사료되어 여성의 이미지가 드러난 장면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1) 페미니즘의 개념 및 특성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페미니즘은 여권주의, 여성해방주의 또는 여성중심주의를 뜻한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이후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특수한 형태로 내재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포착해내려는 것이다. 즉 여성의 불이익 성적 차별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접근하여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고,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등 올바른 전망을 제시하려는 움직임 또는 사상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이론 및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해야 하고, ~할 것이다. 남성은 ~해야 하고 ~할 것이다.’와 같은 기준의 고정 관념을 바꾸려는 노력과 사회운동인 것이다.<sup>3</sup>

페미니즘은 17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여성 해방 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각으로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고정된 의미나 실체를 가진 것이기 보다는 다양한 갈래의 이념과 관점을 사상과 이론, 행동주의 또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sup>4</sup> 여성을 독립된 개인과 정치적 참여자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시민’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19세기는 여성의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역사적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분법으로 여성 해방만을 주장하지 않고 여성을 포함한 소수 인종, 억압받는 계층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집단 세력으로의 등장 뿐 아니라 임금노동, 개인의 시민적 권리, 여성의 피 교육권 같은 사회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sup>5</sup>

<sup>3</sup> 이소민 「마츠 에크(Marts Ek)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박지연의 호수, 카르멘, 잡자는 숨속의 미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7쪽.

<sup>4</sup> 최정인, 「니진스키와 퀸리언 결혼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6쪽.

<sup>5</sup> 양세진, 「1990년대 한국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4쪽.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페미니즘은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여성 권리에 대한 옹호’의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계몽주의, 영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은 페미니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부당함과 억압,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차별적 조건과 부당함이 단지 소수, 우연에 의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삶과도 연결되어있고, 이를 공통된 억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불평등을 기준의 학문으로 규명할 수 없음을 인식한 페미니스트들은 미국의 여성학을 성립시키면서 페미니즘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sup>6</sup>

이와 같은 태동을 거쳐 1960년대에 페미니즘의 본격적인 운동이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되었다. 깨어있는 여성들에 의해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자각적 움직임은 시작되었고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여성의 주변화 과정 속에서 억압되거나 남성적으로 왜곡된 여성성을 되찾아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로 제한된 삶 속에서 여성의 지위나 권한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인격체로서 자리 잡기 위한 여성자각의 해방운동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페미니즘의 목적은 남성에 대한 대립으로 투쟁적 관계가 아닌 남녀 상호 공존을 위한 차원에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사회 각 전반에 걸쳐 생겨나는 사회적 현상 및 이슈, 문학, 예술, 종교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단일한 정의는 어렵다.<sup>7</sup> 여성 중에서도 인종, 민족,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으므로 원인 규명의 작업에서 다양한 시각의 편차와 대립을 보인다. 페미니즘 이론은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토대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해석되어 왔으며, 여성억압의 원인과 강조점, 어떻게 정의하

<sup>6</sup> 최정인, 「니진스카와 키리언 결혼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17쪽.

<sup>7</sup> 최정인, 「니진스카와 키리언 결혼에 나타난 여성이미지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9, 6쪽.

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다양한 요소를 한 단위 안에 혼합하는 다원주의적인 해석과 시각이 요구되며 특정한 방법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하나의 전망으로 볼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페미니즘을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운동을 ‘제 1기 여성운동’으로 나누고, 세계 공항과 1960년대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운동을 ‘제 2기 여성운동’으로 보았다. 최정인(2009)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부터 1차 세계대전 후까지의 흐름을 ‘제 1기 여성운동’으로 보았고, 1960년대 미국 저항운동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제 2기 여성운동’으로 구분하였다. 또 김윤수(2013)는 페미니즘의 전개과정을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평등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한 1920년대까지와 참정권 획득 후 구실점을 상실하게 된 1930년부터 1950년 까지 잠재기 여성운동까지 포함하여 전반기 페미니즘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여성 해방운동이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를 후반기 페미니즘으로 구분하였다.

페미니즘 전개과정에서 ‘제 1세대 여성운동’은 계몽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권에 대한 주장과 운동이 주가 되었고, 교육권, 출산권, 노동권 등에서 남성들과의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참정권과 평등적 교육에 문제점을 두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과 여성 노동자 문제를 중점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서의 여성운동이다.

‘제 2세대 여성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 인종차별운동과 함께 하면서 시작된 여성 운동으로 여성의 교육확대, 가족제도 변화 등의 관심을 확대시켜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80~1990년대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진 포스트모던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을 ‘제 3세대 여성운동’으로 구분하였다.

### 3.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분석

#### 1)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생애 및 작품 활동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는 1960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 메켈른(Mechelen)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 음악을 공부하던 그녀는 릴리안 램버트 무용학교(Lillian Lambert Ecole de la Danse)에서 클래식 발레를 전공하였다. 1978년 모리스 베자르가 벨기에에 세운 무드라(Mudra) 무용학교에 입학하면서 무용과의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2년 동안 수학한 뒤, 1980년 그녀는 자신의 첫 안무작인 〈나는 피곤하다 Asch〉(1980)를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자신이 전공했던 발레의 전통적 우월성에 대항하고, 현대무용의 예술형식과 스타일을 자신의 작품 방향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0년 미국에 티쉬 스쿨(Tish School)에 진학하였으며, 당시 미국의 포스트 모던댄스의 영향과 저드슨 그룹의 일원을 활동하던 여성안무가들의 계보에 이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던 루신다 차일드(Lucinda Childs)와의 영향으로 여성안무가로서 그녀만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방학기간동안 뉴욕에서 머스커닝햄(Merce Cunningham)의 춤, 포스트 모던댄스, 미니멀 댄스 등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당시에 뉴욕은 미니멀 댄스의 유행이 지나간 뒤였지만 그녀는 미니멀 댄스가 가진 “적당한 습기를 가진 건조함”<sup>8</sup>에 매료되었으며, 당시의 미니멀 댄스의 사상적인 측면 보다는 형식적이고 구조화된 측면에 더욱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그녀의 안무 작업에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음악적 측면으로도 스티브 라이히(Steve Reich)나 티에리 드 메이(Thierry De May)와 같은 미니멀리스트 작곡가들과의 작업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고 특히 라이히와의 음악적 영감을 얻고 선보인 〈나는 피곤하다〉에 이어, 두 번째로 〈페이즈 Fase〉(1982)를 티쉬 스쿨 졸업 쇼케

<sup>8</sup> 노리코시 타카오, 2007

이스에서 발표하였다. 뉴욕에서 만난 라이히의 유사한 계열의 음악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성과 점진적인 단계의 변화와 패턴들을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며 그의 작곡원리를 구조적으로 반영하여 만든 작품이다. 그녀는 라이히의 작곡한 음악들에 맞춰 그녀는 ‘무한의 시작에서, 미래를 향한 형태’를 창조해냈고 라이브로 연주하는 음악들은 무용수들의 최상의 공연에 더욱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다.<sup>9</sup> 이러한 방법들은 더욱 확대되었고 그녀의 다양한 움직임과 독자적인 활동들을 구축해 나갔다.

이후 1992년에 발표한 〈모자르트 콘서트 아리아 Mozart Concert Arias〉(1992)는 13명의 무용수와 3명의 소프라노, 39명의 바로크 앙상블을 기용하며 대규모의 작업을 통해 관객들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sup>10</sup> 1995년에는 무용교육기관 P.A.R.T.S(The Performing Arts Research and Training Studio)를 설립하여 1988년에 사라진 무드라 학교를 대신하여 4년간의 교육 과정의 기반으로 무용테크닉 연마와 풍부한 지적 배경의 습득을 위한 극, 음악, 멀티미디어에 대한 교육 방향을 지도하였다. 이를 통해 벨기에 무용 예술의 기반을 다지고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예술 학교 설립 이후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1998년에 〈드러밍 Drumming〉, 1999년 〈바르톡 콰터 Bartok Quartett〉, 2000년 〈인 리얼 타임 In Real Time〉로 그녀의 예술세계를 보다 다양한 영역과 장르로서 시도하며 발표한 작품들이다. 1998년 초연인 〈드러밍〉은 미국식 미니멀리즘의 대표 작곡가인 라이히의 타악기 곡에 맞춰 움직임을 입혀 긴장감이 넘치는 작품으로 그녀의 일관된 예술세계를 보여준 작품이다. 실제로 라이히는 이 작품을 관람한 후 “청각을 시각화한 움직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후 〈드러밍〉은 사라예보에서 최우수안무상(Golden Laurel Wreath)을 수상하였고 강한 비트의 음악과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작품으로 그녀의 대표적인 안무 스타일로 평가되었다. 이 작품은 초연이후에도 각국의 재공연의 러브콜을 받은 작품이고 한국에 LG ART CENTER에서도 초청 받은 작품이다.

<sup>9</sup> Bitches Brew/Tacoma Narrow, 공연 팜플렛, LG Art Center, 2005.

<sup>10</sup> Bitches Brew/Tacoma Narrow, 공연 팜플렛, LG Art Center, 2005.

뉴욕타임즈의 무용평론가 키셀코프(Kisselgoff)는 그녀를 ‘루신다 차일드와 피나바우쉬를 섞어 놓은 듯, 관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동시에 하게 만드는 안무가’라고 평가하였다.<sup>11</sup> 그의 말대로 그녀는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독일의 탄츠테아터(Tanz Theater)의 표현적인 감성의 색채와 움직임의 정교함을 가진 안무가이다.

그녀는 현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안무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 2)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분석

### (1) 〈로사스 댄스 로사스〉 (1983) 분석

| 표 1 | 로사스 댄스 로사스

초연	1983년 5월 벨기에 브뤼셀의 발사민 극장
안무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무용단	로사스 무용단(Rosas Dance Company)
음악	티에리 드 메이(Thierry De May), 피터 베르미어쉬(Peter Vermaaech)
소품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의상	로사스(Rosas)
시간	1시간 50분

〈로사스 댄스 로사스〉 작품은 1983년 벨기에 브뤼셀 카이씨어터 페스티벌(Kaaitheater Festival)에서 초연되었으며 무용단 창단 이후 첫 작품으로서 단체 결성의 과정을 작품화 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눈부신 도약을 하게 된 작품이며 안느 테레사 자신을 포함해서 출연하는 네 명의 여성 무용수들은 모두 무드라 학교 출신이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여성의 강인함과 열정을 추구하였으며, 굳어져 버린 문화적 관습과 싸우는 고통과 정신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상적인 행동 속 움직임을 반복적인 패턴들로 결합

<sup>11</sup> 김윤영, 춤과 사람들, 2006, 79쪽.

시키고 신체의 변화를 구체적이며 인지하기 쉬운 제스처들로 직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네 명의 여인들을 위한 다섯 개의 움직임’이라는 부제로 붙은 이 작품은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 사회적 무질서 속 잠재된 불특정 다수의 폭력을 냉소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후 〈로사스 댄스 로사스〉는 1997년 벨기에 루뱅의 폐쇄된 학교 공간을 배경으로 비디오 댄스로도 제작되어 초연과는 차별화된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분석은 이론적으로 체계화 된 분석법이라 사료되는 자넷 애드쉐드의 분석법을 적용하여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로사스 댄스 로사스〉의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따른 관계, 폐미니즘적 해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① 무용구성 분석

먼저 구성요소에서 움직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무대 바닥을 이용한 바닥 동작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움직임 동작, 마지막으로 스탠딩 상태의 동작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무용수들의 절도 있는 동작의 반복성이 강조되고 강렬한 시선의 자유로움 또한 눈에 띈다. 공간적 요소로는 무대 위의 무용수들의 등퇴장은 없고 의자를 이동시키거나 바닥에 누워 있거나 서서 이동하는 요소로 진행되며 장면의 형태에 따라 무대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다. 역동적 요소로는 무대 바닥의 탄력을 이용한 좌, 우 이동과 누워있고 정지하고 구르기의 역동성이 있으며 상체움직임이 개인하고 절도 있다. 기존의 여성의 연약하고 순종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며 무용수는 4명의 여성무용수들로 구성하였다.

시각적 배경 및 환경요소로는 무대에 조명은 밝지 않고 무용수들의 모습과 무대소품이 보일 정도의 탑 조명과 사선 조명과 무용수들과 구성에 집중되어있다. 무대 세트로는 무대 UP 정면 전체 벽에 투명한 비닐로 전체 벽에 채워져 있으며 무대 상, 하수 바닥에 거울로 배치해 놓았다. 의상은 〈그림 1〉 스키니 톤으로 4명의 여성무용수가 통일성이 있으며 어깨선과 가슴 선의 경계를 갖지 않은 자연스럽고 편한 의상이다. 하체는 타이트하지 않은 치마의상으로 어두운 무대에 잘 보일 수 있는 밝은 컬러이다. 청각적 요소

로는 여성무용수들의 거친 호흡소리와 티에리 드 메이, 피터 베르미어쉬의 반복적이며 절도 있는 박자감 있는 음악으로 흘러간다.

| 표 2 | 〈로사스 댄스 로사스〉, 무용구성요소 분석

무용구성요소	
움직임	공간적 요소 — 무대 등퇴장이 없고 의자를 이동시킨 공간의 패턴변화
	역동적 요소 — 무대 바닥의 탄력을 이용한 움직임과 상체의 강인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
무용수	— 총 4명(여 4)의 무용수
시각적 배경 및 환경	— 무대 조명은 밝지 않고 무대세트는 무대 벽에 투명한 비닐로 채워져 있으며 무대 상, 하수 바닥에 거울로 배치. 의상은 스키顿이며 헐렁이라는 의상으로 어두운 무대에 잘 보일 수 있는 밝은 컬러로 통일된 의상
청각적 요소	— 티에리 드 메이, 피터 베르미어쉬의 반복적이며 절도 있고 박자감 있는 음악과 여성무용수들의 거친 호흡소리의 요소

## ② 무용형식 분석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무대 공간에 무용수들은 반복된 동작으로 의상을 활용한 동작의 변화와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옷깃을 내려 여성스러운 제스처를 관객 앞에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한다. 4명의 여성무용수들은 특정한 역할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무대의 조명은 무용수들의 형체만이 보일 정도의 빛과 그 빛으로 무대정면 벽에 투명한 비닐이 응시된다. 무대에 상, 하수에도 거울이 무대 막을 대신해 고정되어있고 마치 출구가 없는 닫힌 공간처럼 삼면을 막아놓았다. 무대는 정면에 비닐과 상, 하수 거울로 마치 무용수들을 가둬놓은 듯 무대 환경에 배치해 놓았다. 작품의 음악은 티에리 드 메이, 피터 베르미어쉬의 반복적이며 절도 있는 박자감 있는 음악과 여성무용수들의 호흡소리로 무대의 청각적인 사운드로 나타내었다.

정지 상태의 관계는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장면에 나타나는 조명의 빛은 동이 트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여성무용수들은 죽음, 수

면, 휴식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장면변화에 정지 상태로 숨이 멈추듯 변화 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관계는 작품의 시작은 4명의 여성무용수들이 바다에 누워있는 상태의 군무로 1명의 여성무용수가 하수에 무대의자 소품을 이동하며 의자장면의 흐름이 바뀐다. 마지막 장면은 1명의 무용수가 조명 안에서 춤을 추고 나머지 무용수들은 조명 밖에서 반대로 움직인다.

일정순간과 직선적 발전사이의 관계는 작품의 시작은 바닥에 누워서 시작하고 중간에 의자에 앉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동작으로 다리는 꼬아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은 스탠딩 상태로 무대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며 구도의 변화를 준다. 무대의 비닐과 거울은 시각적인 공간의 몰입으로 집중시키며 호흡소리와 절도 있는 음악은 관객들을 집중시킨다. 장면의 흐름에 따라 누워있고 의자에 앉고 서있는 세 가지의 움직임 변화는 여성의 상승 변화를 의도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 표 3 | <로사스 댄스 로사스>, 무용형식 분석

무용형식	
공간적요소와 동적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된 동작으로 의상을 활용한 동작의 변화</li> <li>–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옷깃을 내려 여성 스러운 제스처를 관객 앞에 의도적으로 반복하며 강조</li> </ul>
인원수, 성별비율 역할에 있어서 무용수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한 역할 없이 여성무용수들만 등장</li> </ul>
구성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의 조명은 무용수들의 형체만이 보일 정도의 빛과 그 빛으로 무대정면 벽에 투명한 비닐이 응시</li> <li>– 무대에 상, 하수에도 거울이 무대 막을 대신해 고정되어있고 마치 출구가 없는 닫힌 공간처럼 삼면을 막아놓음</li> <li>– 무대는 정면에 비닐과 상, 하수 거울로 마치 무용수들을 가둬놓은 듯 무대 환경에 배치</li> </ul>
청각적 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에리 드 메이, 피터 베르미어쉬의 반복적이며 절도 있고 박자감 있는 음악과 여성무용수들의 호흡 소리</li> </ul>

### 무용형식

정지 상태에서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멈춰있는 장면에서의 조명의 빛은 동이 트는 듯한 느낌을 자아냄</li> <li>- 여성무용수들은 죽음, 수면, 휴식의 모습을 취함</li> <li>- 장면변화에 정지 상태로 숨이 멈추듯 변화</li> </ul>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시작은 4명의 여성무용수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의 군무로 1명의 여성무용수가 하수에 무대의자 소품을 이동하며 의자장면의 흐름이 바뀜</li> <li>- 마지막 장면은 1명의 무용수가 조명 안에서 춤을 추고 나머지 무용수들은 조명 밖에서 반대로 움직임</li> </ul>
일정순간과 직선적 발전사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시작은 바닥에 누워서 시작하고 중간에 의자에 앉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동작으로 다리는 고아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줌</li> <li>- 마지막은 스탠딩 상태로 무대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며 구도의 변화</li> </ul>
주요관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의 비닐과 거울은 시각적인 공간의 물입으로 집중시키며 호흡소리와 절도 있는 음악은 관객들을 집중</li> <li>- 장면의 흐름에 따라 누워있고 의자에 앉고 서있는 세 가지의 움직임 변화는 여성의 상승 변화를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여짐</li> </ul>

### ③ 〈로사스 댄스 로사스〉(1983) 페미니즘 해석

〈로사스 댄스 로사스〉(1983)의 작품에 나타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당시에 사회적 배경으로는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던 시기였다.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 정치적 구조와 제도가 여성의 억압의 한 원인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인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이 주된 요인으로, 여성의 해방은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 주장 하였다. 그러한 시기에 그녀의 초창기 작품은 여성의 억압을 무대의 시각적인 요소와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무대의 삼면에 비닐과 거울로 여성 무용수들의 등퇴장이 불가능하도록 장치로 되어 있으며 무용수들의 칙칙한 의상은 마치 수용수의 죄수, 공장의 노동자처럼 해석된다. 무용수들의 몸짓

은 강렬하며 때론 무대 객석을 바라보며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시선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들은 닫혀 있는 공간에 여성의 억압이 자유의지의 해방으로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키어스메커가 밀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무대를 하나의 틀에 박힌 상황으로 나타내고 그 시대에 여성의 진보적인 여성상이 되기 위해선 고정관념적인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사료된다.

여성 무용수의 솔로장면에서는 어깨를 노출시키고 빠르게 덮으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은 여성성에 대한 암시와 성적 억압까지도 반영한다.<sup>12</sup> 여성의 성역할은 가부장제에 구속된 좁은 범주에 국한되어졌고 순종적이며 단아한 모습을 가지도록 사회적으로 강요당해왔다. 그러한 사회적 시대의 흐름 속에 작품 〈로사스 댄스 로사스〉은 무용수들의 움직임, 의상, 무대의 시각적인 요소들로 성 구분에 있어서 혼재 되어있으며 당시의 가부장제에서 요구되던 여성의 인습적인 이미지를 저항한다는 점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후반부 작품의 장면마다 무용수들이 누워있는 상태로 바닥의 중력을 통한 휴식하는 포즈와 자고 있는 움직임, 의자의 앞에 다리를 꼬고 업무를 보는 사회인의 모습, 서있는 상태로 절도 있는 움직임의 변화와 강렬한 시선의 자유로움 등 이러한 변화들은 여성의 당당한 자기표현의 확장성으로 보여진다. 무용수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강한 여성상의 모습으로서 앞장선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여성, 남성을 구분 짓는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의도로, 작품에서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나타냄으로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된다.

<sup>12</sup> Maple Emily, Walker Art Center, 2014.

| 표 4 | 〈로사스 댄스 로사스〉, 페미니즘 해석

Rosas danst Rosas DVD 영상캡쳐	장면 설명	해석 및 논의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대는 삼면에 비닐과 거울로 무용수들의 등퇴장이 불가능 하도록 무대 장치가 되어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신체 급진주의 억압이 자유 페미니즘 의지의 해방으로 해석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수들의 의상은 마치 수용수의 죄수, 공장의 노동자처럼 보여진다. 무용수들의 몸짓은 강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성적 억압을 반영 하듯 그 역할 이 가부장제에 구속되어 좁은 범주에 국한된 모습으로 해석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무용수의 어깨를 노출시키고 빠르게 덮으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임의 속도와 시선은 강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업무를 보는 사회인의 모습으로 절도 있는 움직임의 변화와 강렬한 시선의 자유로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남녀를 구분 짓는 성격들을 거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무용수들의 누워있는 상태로 휴식하는 포즈</li> </ul>	

## (2) 〈에레나의 아리아〉(1984) 분석

| 표 5 | 에레나의 아리아

초연	1984년 벨기에 브뤼셀 상뜨 극장
안무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무용단	로사스 무용단(Rosas Dance Company)
음악	리날도 디 카푸아 Rinaldo di Capua, 조지 비제 Georges Bizet, 게타고 도니제티 Gaetano Donizetti, 모짜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소품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Anne Teresa de Keersmaeker)
의상	로사스(Rosas)
시간	2시간

Elena's Aria는 1984년 초연으로 2시간의 작품으로 반 블랑드르 페스티발(Van Vlaanderen Festival)에서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안느 테레사 그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질문과 과거에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과 질문, 그러한 과정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이 작품이 소개되었다(로사스무용단, [www.rosas.be](http://www.rosas.be)). 작품의 무용수는 안무가를 포함 6명의 여성무용수와 영상, 텍스트, 음악이 함께 하였다. 과거의 〈페이즈〉(1980), 〈로사스 댄스 로사스〉(1983)작품으로 흥행과 성공, 많은 커리어를 쌓은 그녀였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미니멀리즘적인 반복과 균형 잡힌 공식, 구조화된 안무스타일을 발전시키지 않은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된다.<sup>13</sup>

(Lex Nikilaevich Tolstoy)와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의 글을 읽는 연기자의 모습과 무대스크린에 보여 지는 영화적인 이미지들을 포함하는 등 기존의 나타났던 안무스타일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들로 작품에 나타났으며 특히 무대에 출연하는 여성무용수들 이외에 연설문, 텍스트의

<sup>13</sup> Anna Kisselgoff, New York Times, 1987.

저자들은 남성들이며 남녀의 성의 이야기를 무대의 여성들이 표현하는 장면에서 이 작품의 특성을 나타낸다.

작품분석은 이론적으로 체계화 된 분석법이라 사료되는 자넷 에드쉐드의 분석법을 적용하여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에레나의 아리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따른 관계, 페미니즘적 해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① 무용구성 분석

움직임은 신체 전체를 사용하며 무용수들끼리 같은 동작을 맞추기도 하고 각자 다른 움직임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높이의 변화가 낮아지면서 바닥의 중력을 통해 느긋한 움직임이 형성된다.

공간적 요소로는 무대에 소품의자의 위치 변화로 공간의 형태와 무용수들이 구도가 변화하며 역동적 요소로는 여성무용수들이 의자에 기대어 순간적인 탄력으로 높이의 변화가 일어나며 맨발의 텐과 하이힐을 탄력을 통한 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3인무, 2인무, 군무 형태의 움직임은 짧은 치마의상의 제한으로 하체움직임이 최소화 되었으며 상체움직임의 역동적 동작으로 무대의 전체 공간을 활용하며 움직인다. 무용수는 6명의 여성무용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각적 배경 및 환경은 무대의 조명은 색색의 의자가 보이는 밝은 조명으로 텁 조명 보다는 전체무대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으로 무용수들의 신체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효과를 냈다. 특히 마지막 무대 벽면에 영상이 투사 되면서 영상의 빛이 바닥에 투사가 되면서 특별한 조명 없이 무대에 무용수들이 움직인다. 또한 무대에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통일된 스커트원피스 의상으로 무대에 통일성을 나타난다.

청각적 요소로는 작품의 전반부에는 무음으로 시작되며 여성무용수가 신은 하이힐은 바닥을 긁는 소리의 사운드, 작품의 중, 후반부에는 무대의 남성 성악가의 교향곡이 나오며 남성의 녹음된 음성의 연설문도 흘러나온다.

| 표 6 | 〈에레나의 아리아〉, 무용구성요소 분석

무용구성요소	
움직임	공간적 요소 – 무대에 소품의자의 위치 변화로 공간의 형태와 무용수들의 구도가 변화
	역동적 요소 – 여성무용수들이 의자에 기대어 순간적인 탄력으로 높이의 변화와 텐의 작용
무용수	– 총 6명(여 6)의 무용수
	시각적 배경 및 환경 – 무대 조명은 색색의 의자가 보이는 밝은 조명 –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통일된 스커트원피스 의상
청각적 요소	– 작품의 전개부분에 음악은 무음으로 시작되며 여성무용수가 신은 하이힐의 바닥 굽히는 소리의 시운드 – 작품의 중, 후반부에 무대에 남성 성악가의 음악(교향곡)이 나오며 남성의 음성이 녹음된 연설문도 흘러나옴

## ② 무용형식 분석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무대의 소품인 의자의 위치변화로 공간의 형태가 변화한다. 무용수들은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거나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기댄 상태로 높이의 변화로도 움직인다.

1명의 무용수는 의자를 이동하고 무대의 전환 역할을 하며 나머지 5명 무용수들은 5인무, 3인무, 2인무 형태로 움직인다. 화려한 색상들의, 의자, 짧은 스커트의상과 하이힐로 사회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무용수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바닥을 누워있거나 움츠려있는 동작들로 답답하다. 무대 한가운데에 분필로 원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 무용수들은 힐을 신고 서로를 추적하고 번갈아가며 도망 다닌다. 작품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빌딩의 영상이 나온다.

정지 상태에서의 관계는 의자에 기대어 고정된 상태로 앉아있거나 바닥에 움츠려 누워있는 상태의 정지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관계는 작품의 시작은 1명의 무용수가 분필로 원을 그리고 다른 무용수들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원을 따라 추격하듯 따라다닌다. 힐을 신고 치마를 올리고 내리면서 낮은 몸의 형태를 보인다.

작품의 중간은 의자의 배열이 바뀌고 무용수들의 의자 사이사이를 이동하면 움직인다. 작품의 마지막은 바닥으로 낮춘 채로 등 모습을 보이고 힘이 풀린 채 움직인다.

일정순간과 직선적 발전사이의 관계는 원을 중심으로 돌거나 의자의 배열이 직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배열에 곡선의 이동 동선들의 움직임, 바닥에 앉은 채로 등 모습이 수평적이다. 곧게 선 상체 뒷모습이 양 옆으로 수직 낙하한다.

주요관계들은 작품 전반부에는 음악의 영향은 크게 없으며 의자의 구도에 따라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며 후반부에도 바닥과 의자를 통해 움직임변화가 있고 아리아음악에 무용수들의 곡선의 상체 움직임과 움츠리고 젖힌 형태의 움직임 변화로 그 구성과 함께 폭파되는 빌딩영상이 나타나며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 표 7 | 〈에레나의 아리아〉, 무용형식 분석

무용형식	
공간적요소와 동적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의 위치변화로 공간의 형태가 변화</li> <li>- 무용수들은 빈 공간을 찾아 움직이거나 때론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기댄 상태로 높이의 변화 이용</li> </ul>
인원수, 성별비율 역할에 있어서 무용수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명의 무용수는 의자를 이동하고 무대의 전환 역할</li> <li>- 나머지 5명 무용수들은 5인무, 3인무, 2인무 형태로 움직임</li> </ul>
구성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려한 색상들의, 의자, 짧은 스커트의상과 하이힐로 사회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무용수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남</li> </ul>
시각적 배경, 환경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움직임은 제한적이며 바닥을 누워있거나 움츠려 있는 동작들로 답답함</li> <li>- 무대 한가운데에 분필로 원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 무용수들은 힐을 신고 서로를 추적하고 번갈아가며 도망다님</li> <li>- 작품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된 빌딩의 영상이 나온다.</li> </ul>
청각적 요소들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악가의 녹음본 음악이 흘러나오고 박자에 관계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임</li> </ul>

무용형식	
정지 상태에서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자에 기대어 고정된 상태로 앉아있거나 바닥에 움츠려 누워있는 상태의 정지 움직임</li> </ul>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시작은 1명의 무용수가 분필로 원을 그리고 다른 무용수들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원을 따라 추격하듯 따라다님</li> <li>– 힐을 신고 치마를 올리고 내리면서 낮은 몸의 형태를 보임</li> <li>– 작품의 중간은 의자의 배열이 바뀌고 무용수들의 의자 사이사이를 이동하면 움직임</li> <li>– 작품의 마지막은 바닥으로 등 모습을 보이고 힘이 풀린 채 움직임</li> </ul>
일정순간과 직선적 발전사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을 중심으로 돌거나 의자의 배열이 직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배열에 곡선의 이동 동선들의 움직임</li> <li>– 바닥에 앉은채로 등모습이 수평적</li> <li>– 곧게 선 상체 뒷모습이 양 옆으로 수직낙하</li> </ul>
주요관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전반부에는 음악의 영향은 크게 없으며 의자의 구도에 따라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며 후반부에도 바닥과 의자를 통해 움직임 변화</li> <li>– 아리아음악에 무용수들의 곡선의 상체 움직임과 움츠리고 젖힌 형태의 움직임 변화로 그 구성과 함께 폭파되는 빌딩영상이 나타나며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킴</li> </ul>

### ③ <에레나의 아리아> (1984) 페미니즘 분석

<에레나의 아리아> 작품의 페미니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여성의 이별을 다룬 작품으로 여자무용수들은 하이힐과 파티 드레스를 입은 성인의 모습으로 불행적인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어깨 너머까지 온다. 그들은 구부리고 옹크리고, 등 뒤를 구부려서 커브를 강조하고 스커트를 위로 끌어올려서 무용수의 긴장된 허벅지를 드러낸다. 그들의 성은 나약하고 취약하게 만들며 무대 공간에 의자에 앉고 떨어지면서 바닥에 힘없이 누워 공간을 공허하게 바라본다.<sup>14</sup>

<sup>14</sup> Marina Harse, Dance Tab, 2014.

작품의 3분의 2는 여성들이 하이힐과 달라붙는 드레스 때문에 제한받는다. 이러한 효과는 그 전작과 매우 비슷하며 여성의 성문제를 본격적으로 폭로하며 여성의 사적인 문제들이나 여성의 육체의 억압으로 표현하였다.<sup>15</sup> 여기서 안무자는 작품 안에 무용수들의 짧은 치마를 들어 올리며 여성의 신체의 억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듯 제한된 활동으로 표현한다. 또한 무대 바닥의 원을 따라 무용수들은 추격을 하듯 상대무용수의 따라다니다가 그 원을 이탈하는 장면은 그 시대의 진보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선 고정 관념적인 틀을 깨야 한다는 안느 테레사의 의도로 사료된다. 이러한 성향들은 여성의 자유의지 해방적 행동으로 급진주의 페미니즘 시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 4. 요약 및 결론

오늘날 다양한 안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무용수의 이미지는 기존의 여성상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 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독립적이며 영향력 있는 여성무용수의 이미지는 과거 현대무용의 등장과 함께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시기와 함께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 음악, 무용, 문학, 영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무용예술에 있어 페미니즘은 진보적인 안무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졌고, 이는 그 당시 만들어진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18세기부터 시작된 페미니즘 운동 이후 여성의 인식이 더욱 변화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활동한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80년대 이후의 작품들을 여성의 이미지를 페미니즘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무용분석법을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하여 페미니즘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그녀의 작품 〈로사스 댄스

<sup>15</sup> Anna Kisselgoff, New York Times, 1987.

로사스〉, 〈에레나의 아리아〉의 영상분석을 통해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네 작품의 무용수들이 여성의 육체를 직접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억압된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 〈로사스 댄스 로사스〉에서는 여성스러운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일상적인 동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가녀린 여성의 이미지, 보호 받아야 할 것 같은 소극적인 이미지가 연출된다. 가부장제에 요구되던 여성의 나약하고 순종적이며 단아한 모습들의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장면이 바뀌면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항하듯 그 반대의 양상들로 나타난다. 움직임에 제한이 없는 편한 차림의 의상으로 강렬한 움직임을 추기도 하고 특정자세를 취한 무용수들의 시선은 여성의 자유로움의 해방적 요소로서 적극적이고 관능적인 면까지도 부각 되면서 개인화된 인상을 남긴다.

〈에레나의 아리아〉에서는 여성의 성(性)의 이미지를 내포하듯 짧은 미니 스커트와 하이힐을 신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거나 힐을 신고 불편한 듯 무대공간을 이동한다. 여성의 육체적 억압은 의상과 제스처를 통해 표현되었고 그들은 바닥에 그려진 하얀 원을 돌면서 마치 상대방을 쫓아 다니며 추격을 하듯 바닥의 원 안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현실적인 상황 설정으로 인한 무대의 상징적인 소품과 세트와 무용수와의 관계이다. 〈로사스 댄스 로사스〉에서는 무대의 삼면의 공간을 비닐과 거울로 막아놓고 객석의 관객들과 마주한다. 무용수들의 등퇴장은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이는 마치 답답하고 통로가 없는 수용소를 연상하게 하며, 수용소 혹은 간한 공간에서의 반복적인 노동을 연상하게 하는 움직임은 여성의 전유물인 듯 보여진다. 의상 또한 죄수복을 연상시키듯 일률적이다. 〈에레나의 아리아〉에서는 무대 바닥의 하얀 분필로 원을 그리고 그 원을 따라 무용수들은 추격을 하듯 상대무용수의 따라다니다가 그 원을 이탈하는 장면으로 여성의 자유의지의 해방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 표 8 |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성향

작품명	초연연도	해석 및 논의	페미니즘
Rosas danst Rosas	1983년	여성의 신체적 억압이 자유의지의 해방으로 해석	급진주의 페미니즘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거부함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Elena's Aria	1984년	여성의 신체 억압이 자유의지의 해방으로 해석	급진주의 페미니즘

셋째, 두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성향은 〈로사스 댄스 로사스〉에서는 여성의 억압이 자유의지의 해방으로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남녀의 성 구분을 거부하고 모호함을 나타내며 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시각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느 테레사 드 키어스매커의 작품 영상을 분석하면서 그녀의 안무철학과 방향에 있어서 본 연구자에게 있어 또 다른 시각과 영역,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현 시대에 활동하는 여성 안무가들 중 가장 주목받는 안무가인 만큼 그녀의 작품세계를 페미니즘 관점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국내에는 키어스매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비교분석할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키어스매커의 페미니즘적 성향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서 오늘날의 여성과 남성 무용가들의 역할 이미지에 대한 재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 후속 연구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안에 큰 범주 안에서의 여성의 입장과 의식들을 그녀의 작품 안에서 고스란히 표현해낸다고 해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 내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들, 여성 몰카 등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슈들이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대립이 강해지고는 있으며 더불어 페미니즘 저항운동 또한 더욱 거세게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무용계에서도 보면 대다수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들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남성무용가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많아지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남성안무가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성과 여성의 성(性) 혼재된 양상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여성안무가의 위치, 여성의 독립적인 활동과 개인함, 더욱 극대화된 몸짓들이 작품 내에 보여 진다. 그것이 여성안무가들의 활동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대적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의 표현들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통하려하는 예술가들의 역할자로 그 특색들이 나타났다. 또한 그녀들의 안무철학과 방향에 있어서 본 연구자에게 있어 또 다른 시각과 영역,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며 현 시대의 여성과 남성무용가들의 이미지와 상생효과로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노리코시 타카오, 『컨템포러리 가이드』. 최병주 역, 북쇼 컴퍼니, 2007.  
 크리스티 아데어, 『춤, 여성, 그리고 남성』, 이화여대출판부 춤, 김채현 역, 1995.

### 논문

- 김윤수, 「미국발레에 내재된 페미니즘적 특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3.  
 양세진, 「1990년대 한국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9.  
 유희주, 「한국 현대무용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 성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9.  
 이소민, 「마츠 에크(Marts Ek)의 작품에 나타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지젤, 백조의 호수, 카르멘, 잠자는 숲 속의 미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7.  
 진희진, 「무용작품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마리뷔그만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최정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마이요의 발레작품 신데렐라 분석 계모와 두 자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5.  
 최정인, 「니진스카와 키리언 결혼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기타

Rosas danst Rosas, 1hour and 50minutes, DVD.

코브라닷비 <http://cobra.canvas.be>

유튜브 <http://youtube.com>

워커아트 <http://blogs.walkerart.org>

사르마 <http://sarma.be/docs/1205>

뉴욕타임스 <http://nytimes.com>

엘지 아트센터 LG Art Center (2005), Bitches Brew/Tacoma Narrow 공연, 팜플렛.

## Abstract

# A Study on the Feminism Represented in Anne Teresa De Keersmaeker's Works

JUNG, Sood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aculty of Performing Arts, Instruct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early works of contemporary Europe female choreographer Anne Teresa de Keersmaeker, which are Rosas danst Rosas, Elena's Aria in terms of feminism. Started from 18C, feminism movements have changed the perception and conception of women. Since then, women in the work of art have been portrayed to be more powerful and independent than weakened images. The influence of feminism in this era made transition to let female artists act more outstandingly nowadays. Therefore, the study began with the need to reflect the image and role of female dancers in the artistic work with the viewpoints of feminism in the flows of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Works of Rosas danst Rosas represents the aspects of radical feminism. Physical suppression of female dancer reflects liberation of free will. Post-modern feminism is displayed at Rosas danst Rosas which escaped from original portrait of women and exposed new active contemporary image of woman. The Elena's Aria, Radial feminism is represented physical suppression of female dancer reflects liberation of free will.

Through analysis of Anne Teresa's works with feminine sight, her works were mainly influenced by feminism occurred after 1980's. Having found other possibilities to explore her choreographic philosophy, insufficiency of domestic data about Anne Teresa was once again reckoned. The researcher hopes that by studying Anne Teresa from the

